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베드로의 작은 배는 오늘도
파도를 가르며 교회를 품고 갑니다.

순명은
나를 잃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길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복음 안에서 화음을 이루듯,
일치는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겸손히 귀 기울이는 마음에서 성령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내 뜻을 조금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뜻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걷는 순례자입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6/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8,645

현재 참가 인원 - 37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55 예물준비 성가 : 340, 215 성체 성가 : 496, 498 파견 성가 : 200

| 연중 제12주일(6/21) | 토요 저녁(7:00) | 주일 아침(8:00) | 교중(10:00) | 청소년(11:30) | 청년(5:30) | 미사참례자 합계 |
|----------------|-------------|-------------|-----------|------------|----------|----------|
| 미사 참례자 | 43명 | 88명 | 194명 | 93명 | 45명 | 463명 |



칼 라너(2)

삶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을 찾은 신학자

『익명의 그리스도인』

물론 이러한 견해는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 다른 종교인들을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스도교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개념이 선교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복음 선포 사명을 상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너의 의도는 결코 선교를 포기하거나 타종교를 흡수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교회의 오랜 신앙을 현대 세계 속에서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의 뿌리는 트리엔트 공의회와 '세례에 대한 욕구'(votum baptismi)에 관한 가르침과 양심 및 자연법에 대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더 멀리서 Augustine of Hippo 성 아우구스티노, Thomas Aquinas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John Henry Newman 존 헨리 뉴먼에 이르는 가톨릭 사상의 흐름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개방적 시각 덕분에 라너는 무신론자, 마르크스주의자, 타종교인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의 사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정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공의회에서 공식 신학자(peritus)로 활동하면서 특히 빈 대교구장 Franz König 프란츠 쾨니히 추기경의 신학 자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교회가 현대 세계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 나누어야 하며, 비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 다른 종교인들과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전은 공의회와 여러 문헌에 반영되었고, 교회가 현대 세계와 타종교 및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

1904년 3월 5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난 라너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형을 따라 예수회에 입회하였고,



1932년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교수로 활동하며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는 로마노 가르디니의 뒤를 이어 뮌헨 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이후 뮌스터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재직하였다. 은퇴 후에도 연구와 저술을 계속하다가 1984년 3월 30일 인스브루크에서 선종하였다.

라너는 생전에 수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현대 가톨릭 신학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다양하지만, 그가 현대 신학에 미친 영향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많은 학자들은 그를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가장 중요한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라너의 위대함은 신학을 인간의 삶과 분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하느님을 일상의 신비 안에서 찾았고, 인간의 가장 깊은 물음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살아 있는 신앙의 성찰로 남아 있다.

공지 사항

1 교황 주일 특별 헌금

Peter's Pence Collection

● 일시 : 6/27(토)-28(주일)

교회는 베드로 사도 축일인 6/29에 베드로 사도 후계자인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참여 바랍니다.

2 구역장 회의

● 일시 : 6/28(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7/4(토) 오전 10시

4 울뜨레야 아우회

● 일시 : 7/4(토) 오전 11시

● 장소 : 본당

2026년 울뜨레야 아우회를 개최합니다. 꾸르 실리스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지들도 초대하오니 동반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여름 특강

● 주제 : 화해와 일치, 시노드

● 대상 : 전신자

● 일시 : 7/5(주일) 10시 미사 후 (1시간 30분)

● 강사 : 이제열 바실리오 신부님 (교황청립 성서연구원)

특강으로 이날 11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꽃동네 피정 프로그램

● 주제 : 관계의 치유, 감추어진 사랑

● 대상 : 전신자

● 일시 : 7/11(토) 1pm - 5pm(총 4시간)

● 강사 : 조인혁 타대오 신부님 (현 가나 꽃동네 분원장)

● 신청 : 피정 준비관계로 참가자는 QR 코드로 스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힘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8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9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열왕 하 4,8-11.14-16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2독서로마 6,3-4.8-11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0,37-42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기금 (6/21/26 집계)

김태자, 김명준, 이성준, 정부자, 송건순, 익명, 벨뷰 구역, 레드몬드 구역

모금 총액: \$2,755.00

첫 영성체 예식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하늘 뜨락제

2026

AUG
22
2026년 8월 22일 (토)
Saturday, August 22

오전 11시 — 오후 6시
11:00 AM — 6:00 PM

시애틀 한인 성당
11700 1st Ave NE, Seattle, WA



행사 프로그램

Event Programs

바자회
Bazaar

먹거리
Korean Food and Beer

어린이 놀이터
Kids Play

축하공연
Stage Performance

작품 전시 및 경매
Art Exhibition & Auction

50년 사진전
Photo Exhibition

바자회, 작품 및 음식 판매를 통한 성당 보수 기금 마련
Fundraising for Parish Renovation through Bazaar, Art & Food Sales

레오 14세 교황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과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반포 60주년 기념 교황 교서

미래를 탄생시키는 충실성 (Una Fedeltà che Genera Futuro)

1. 미래를 탄생시키는 충실성은 오늘날에도 사제들이 부름받은 모습입니다. 사도적 사명 안에서 항구함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사제직의 미래를 성찰하고 다른 이들이 사제성소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돕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희년에 맞이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60주년은, 1965년 10월 28일과 12월 7일에 각각 반포된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과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이 열매 맺는 충실성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두 문헌은 교회의 단일한 숨결에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일치의 표징이자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 전체가 바라는 쇠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제들의 교역에 많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스스로를 쇠신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념일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문헌은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 직무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그 준비에 관한 신학적 성찰의 이정표로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탁월한 생명력과 시의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문헌들을 계속 읽고 특히 신학교들, 그리고 성품성사로 받은 직무에 대한 준비와 양성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이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성품성사에 관한 교회의 교리적 전통의 흐름 안에 잘 자리 잡은 ‘사제 양성 교령’과 ‘사제 생활 교령’은 직무 사제직에 대한 공의회의 깊은 성찰을 중심 과제로 삼았으며, 사제들을 향한

공의회의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적은 공의회가 추진한 쇠신에 따라 미래 세대의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직무적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는 동시에, 건전한 교리적 발전의 관점에서 이전의 성찰을 통합하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령들이 교회 전체에 전달한 사명을 받아들여, 살아 있는 기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대라는 뿌리에서 힘을 얻어, 모든 신자와 함께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은, 선교하는 제자가 되고자 매일 사제 직무를 새롭게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4. 공의회 이후 60년 동안 인류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는 우리가 걸은 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의회의 가르침을 일관되게 현실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몇 년에 걸쳐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시노드적이고 선교적인 형태에 따라 친교로서의 교회 본질에 관한 공의회 교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뜻을 따라,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시는 바에 비추어 성품 사제직의 정체성과 기능을 함께 재고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쇠신의 과업을 이어가고자, 이 교황 교서를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를 충실성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충실성은 하느님의 은총인 동시에,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기 위한 끊임없는 회개의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세계 곳곳에서,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용서하고, 날마다 기꺼이 형제자매들에게 헌신하는 사제들의 증언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형제자매들의 친교와 일치를 위하여 봉사하고, 특히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충실성과 봉사

5. 교회의 모든 성소는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에서 생겨납니다. 모든 헌신, 선한 개인적 열망, 그리고 봉사에 앞서 “나를 따라오너라.”(마르 1,17)라고 부르시는 스승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마르 10,21 참조). 이는 단순한 내적 목소리가 아니라, 흔히 다른 제자들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용기 있는 삶의 선택으로 구체화되는 영적인 이끌림입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기억하고, 영성 생활에 정통한 이들이 함께해 주는 필수적인 동반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 충실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 말씀의 메아리는 시간이 흐르는 내내 그리스도와 이루는 내적 일치의 원리이며, 이는 사도적 생활에서 근본적이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6. 성품 직무로의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실제로 성소는 주님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구원과 자유의 계획을 따르라는 사랑의 제안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주 예수님께서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온 교회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선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사제의 해’를 마치며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느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까이 계심에 기뻐하고 하느님께서 나약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맡겨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젊은이들에게 사제성소가 어떠한 것인지, 곧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이 친교의 봉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자 하였습니다.”

7. 모든 성소는 지속적인 회개의 역동성 안에서 충실히 지켜져야 할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명은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사들 특히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에게 다가가며, 사제적 형제애를 실천하는 가운데 길러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가장 탁월한 자리인 기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제는 날마다 마치 갈릴래아 호숫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라는 질문에 “예.” 하며 자신의 응답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제 양성이 신학교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22항 참조), 지속 양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인간적, 영적, 지적, 사목적 쇄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제 양성 교령’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선물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하여(2티모 1,6 참조) 언제나 자기 양성에 힘쓰도록 부름받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충실성은 정체되거나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받은 성소를 확인하고 성숙시키는 매일의 회개 여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80개국에서 800명 이상의 지속 양성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바티칸에서 개최된 ‘사제 지속 양성을 위한 국제회의’와 같은 시도들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지속 양성은 단순한 전문성 향상이나 지적 훈련을 넘어, 함께 걷는 여정 안에서 자신의 성소를 살아 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9. 부르심의 순간부터 초기 양성까지, 이 여정의 아름다움과 지속성은 ‘그리스도를 따름’(sequela Christi)으로써 지켜집니다. 모든 사제는 양 때를 이끄는 데에 헌신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 역시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스승님의 제자임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사제는 “평생 동안 언제나 ‘제자’가 되어 사목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리스도께 동화되기를 끊임없이 열망”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러한 순종적인 따름과 충실한 제자직의 관계만이 삶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마음과 정신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지난 수십 년간 성직자 일부가 자행한 학대로 말미암아 발생한 교회의 신뢰 위기는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겨 주며 겸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는 풍요롭고 견고한 영성 생활과 더불어 사제직 후보자들의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보장하는 통합적 양성의 시급함을 더욱 절감하게 했습니다.

11. 양성의 주제는 몇 년 뒤나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사제직을 떠나는 이들의 현상에 대처하는 데에도 핵심적입니다. 이 아픈 현실은 단순히 법적 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형제들의 역사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복합적인 이유를 세심함과 자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무엇보다 쇄신된 양성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마음과 지성, 자유 등 전 인격을 포괄하며, 그를 착한 목자를 닮은 모습으로 빛어 내는 주님과 친밀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12. 따라서 “신학교는 어떤 모습이든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학생들이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동기 부여에 관하여 내적으로 성찰하도록 권고합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 그 무엇도 버려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밀알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건실한 사제와 축성 생활자, 곧 인간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잘 통합되어 모든 이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만이 독신의 의무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신뢰 있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결국 이것은 끊임없는 회심과 새로워진 충실성의 여정을 통하여 성소를 지키고 가꾸기를 요구합니다. 이 길은 결코 순전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공동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언제나 은총의 활동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품어 안으며 자기애와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인간성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모든 신뢰를 주님께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사제들의 마음 안에서 자기 중심성의 유혹이 경청과 봉사의 마음가짐에 자리를 내어 주지 않는다면, 친교와 시노달리타스, 그리고 사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께서 강조하셨듯이, “사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의 삶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성격을 띠는 의미입니다. 사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온전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제는 기도 안에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머물며 그리스도의 뜻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 참된 해방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역자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충실성과 형제애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들의 특수한 봉사 직무를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누리는 동등한 존엄성과 형제애라는 틀 안에 배치했습니다. ‘사제 생활 교령’이 증언하듯, “신약의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백성을 위하여 가장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인 아버지와 스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제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들을 부르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세례의 샘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과 함께 사제도 서로서로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같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은 모든 사람이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형제애는 세례성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느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사제들은 서품을 통하여 사제직의 품계에 세워졌으므로, 모든 사제는 서로 친밀한 성사적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기 주교 아래에서 한 교구에 봉사하도록 배속된 사제들은 그 교구 안에서 하나의 사제단을 형성합니다. ……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이 사제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각기 사도적 사랑과 봉사와 형제애의 특수한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사제들의 형제애는 완수해야 할 과업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성품성사의 은총에 내재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보다 앞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교의 직무에 참여하게 하고, 주교와의 친교, 그리고 동료 사제들과의 친교 안에서 실현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 다음주에 계속 >